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조직신학원론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계시론

계시의 의미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종말의 새로운 나타남

- ‘계시’ :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무엇.
우리의 시·공간 경험과는 다른 무엇
- 근본적으로 다른 것, 새로운 것
-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 $\mu\upsilon\sigma\tau\acute{\eta}\rho\iota\omicron\nu$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막 4:11)
뜻의 비밀 (골 1:26)
= 그리스도(엡 3:3, 4)
- 신약성서 상의 비밀: 역사의 종말을 드러낸
‘복음의 비밀’ (엡 6:19)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역사적 사건으로서 계시

-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사건 (세계를 포기하지 않은)
- 과정:
 - 1) 특정 시대에 주어진 유일회적 사건들 (예언자 계시)
 - 2) → 반복
 - 3) 실제로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 (화해/ 구원자 예수)
- * 어떠한 인간도, 종교지도자도 구원/화해자 될 수 없다.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은혜의 사건으로서의 계시

- 은혜 = 하나님의 행위
- 사건의 근원, 발단: 하나님이 계시자
- 기대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
- 이 세계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는.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구원의 사건으로서의 계시

-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중립적 ‘의사소통’ 수단 (x)
- 마술적 수단 (x)
- 계시는 세계의 폐쇄성을 드러낸다(인간성을 드러낸다).
Cf. 롬 1:20, 21.
-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다(롬 1:18).
-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 예수 그리스도이다(엡 3:4; 골 1:27, 2:2).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초자연적인 것이나 신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아야
-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는 어떤 신비한 환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갈 1:12)
- 계시가 종식시키는 어두움은 타락, 죄, 사멸이다.
→ 타락한 삶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계시의 내용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1) 전통적 계시:
 -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 2) 루터: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진노 율법, 죄의 용서/은혜 복음)
- 3) 알트 하우스: 율법- 하나님의 비본래적 낯선
복음- 하나님의 본래적
- 4)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 ‘참 사람’
← 그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시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인간성의 계시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인간 모습 계시
- 하나님의 사랑 → 죄인으로서의 인간
- 계시의 내용 → 수치를 자초하고 하나님을 추방한
현실 속에 임하여 살았다.
→ 참된 인간의 모습 계시
- 1)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 2)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3) 하나님을 위한 존재 → 예수 그리스도
- 예수는 우리에게 인간성을 계시한다.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신성의 계시

-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
→ 자기가 화해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계시한다.
- 자비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 죄/진노의 심판 면제 불가
- 십자가 =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동시에 용서의 선언이다.”
-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부정인 동시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새로운 세계의 계시

- 새로운 존재, 새로운 현실을 계시
→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 “때가 다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막 1:15)
-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 ← 옛 시대의 종말
- 우주적 신성이 → 예수 안에 → 베일이 벗겨져
Vs. 인간 본성/ 인간성의 나타남을 계시로
- 예언자/ 묵시사상가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모든 계시를 증명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죽은 자의 부활은 본래 후기 유대교의 목시사상으로부터 유래하는 표상
→ 죽은 자의 부활 = 세계의 종말의 시작
- “羲의 새로운 세계의 미래와 하나님의 현재가 죽음의 이 역사 한 가운데서 이 한 사람에게서 이미 시작되었다” — W.G. 콤멜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약속으로서의 계시

- 약속의 성취 ≡ 현실적 완성
= 종말론적 성격
- 1) 인간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실
2) 약속된 미래로부터 역사의 의미 발견
3) 영원히 동일한 것의 운회 (x)
미래 성취를 위한 모순 과정 (o)
4) 예기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 성취의 주체도 하나님
- 현실과 약속 사이의 모순
→ 모두의 행복 ≡ 유한한 행복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인간과 그의 세계의 속성
 -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분리
 -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 속에 폐쇄되려는 경향성
 - 하나님의 미래 거부
 - 동일한 것, 무의미한 것을 반복하고 연장시켜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절대화 시키려는 경향성
- 이 모순의 극복 = 역사의 부정성에 있다.
- 순환적 역사의 부정/단절 = 계시 = 약속
(역사의 주인)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천상계의 비밀한 계시 (x)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o)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계시와 율법의 분류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계시의 분류
 1. '일반계시' 혹은 '자연계시'
 2. '특별계시' 즉 '초자연적 계시'
 - 직접계시: 성서 기자들이 받았던 계시/영감
 - 간접계시: 성서를 통하여 뒤의 세대가 받는 계시
- 율법의 분류
 1. 종교의식법
 2. 심판법 (형법)
 3. 도덕법 (cf. 십계명) - 정치적 사용 (죄 억제)
 - 교육적 사용(죄 깨달음)
 - 교훈적 사용 (올바른 삶)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자연계시의 근거

- 로마 카톨릭, 공식 인정 | 칼 바르트, 부정
- 알트 하우스
 - 1) 죄는 하나님의 뜻 거절
→ 죄에 대한 복음은 복음 이전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한다.
 - 2) 인간의 정신과 양심에 하나님 자신을 알렸다.
 - 3) 복음은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윤리 배경과 배치하지 않는다.
 - 5) 최초 기독교는 페르샤의(그 외 이교도) 종교적 영향이다.
 - 6) '진리', '생명'이라는 개념은 다른 배경에서 유래/공유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폴 탈리히
 - 1) 하나님은 '존재' or '존재 자체'
 - 2) 존재자는 비존재의 위협 속에서 존재의 힘으로 극복
 - 3) 그렇게 실존하는 모든 존재들 안에 참여
 - 4) 슬어: '자연', '역사', '말', '궁극적 계시'
 - 5) 보편적 계시 -----> ----->

준비시대

↑

궁극적 계시

수용의 시대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에밀 브룬너
 - 1) 성서와 초대교회 교부가 창조/자연계시를 가르쳤다.
 - 2) 피조물은 창조주를 계시한다.
 - 3) “불의로써 진리를 막는” 상태
→ 예수 이전 인간, 자연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리 전제
 - 4)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 인간은 죄인일 수 없다
 - 5) 창조주는 피조물에 자기를 나타낸다 (롬 1:20)
 - 6) 인간이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이 타락한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창조 계시는 죄로 폐기 안 됨
 - 7) 죄는 근원적 폐기가 아닌 전도(顛倒)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바르트 (자연계시 거부, 특별계시의 근거)

- 1) 자연 계시를 거부한다.
- 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계시의 무위를 유도함.
- 3) 성서를 계시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게 됨.
- 4)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자연계시의 보충으로 이해하려
- 5) 은혜와 자연의 협동 = 은혜와 자유 제한
- 6)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존재
- 7) 계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자신의 계시
- 8)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 9) 자연 계시의 거부는 제3제국 정치 현실과 연관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10)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인식하게 하는 성령의 단독적 능력을 제한하게 됨.
- 11) 십자가의 주권 무위 → 종교개혁의 원리 부인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자연계시 부정 근거

- 하나님은 우리의 코스모스 안에서도, 우리를 만나는 현실로서의 하나님으로 존재
- 아들의 성육신은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
- 우리가 잘 아는 형태들과의 유비 속에 신 인식
- 인간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영원
- 하나님의 아들은 자연의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과 같은 인간
- 진리는 그리스도의 계시에만 있다.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다.
- 만들어진 신의 우려가 있다.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자연계시, 특별계시 종합

- 자연신학의 한계 인식할 것
- 자연계시는 그리스도의 계시 안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 인간은 자연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받들어 섬기거나 감사하기는커녕...어리석은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
-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을 때만 자연계시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자연계시를 보아야 할 것.
- 자연계시로부터 출발하여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고자 해서는 안 됨.
- “한 주님이 계시며, 인간은 한 주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계시 없이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할 수밖에 없는 것, 성서의 증언에 의하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은 주권(하나님의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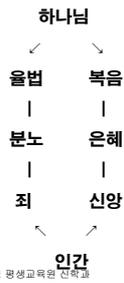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율법과 복음의 계시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분리되어 계시
-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분노와 은혜가 계시되며,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와 신앙이 계시된다.
- 계시 개요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몰트만의 계시

-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상처받은 사랑이며 인간에 대한 그의 반응의 방식
- 사랑이 하나님의 분노의 원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 (바르트의 삼위일체 계시)

성부	성자	성령
- 계시자	- 계시	- 계시의 능력
- 은폐	- 드러남	- 전달
- 자유	- 형태	- 역사성

- 루터의 십자가 영향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학과 하나님의 인식이 있다” (루터)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삼위일체의 내용적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십자가의 인식의 형식적 원리는 삼위일체론이다.”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발전적 계시와

완결된 계시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발전적 계시

- 1) 기초적 중심 계시 (성서)
- 2) 계속되는 계시 (교회사 전통)
- 3) 현재의 계시 (현재의 체험)
- 톨리히, “궁극적 계시” ≡ 마지막 계시
 - “교회 밖 모든 종교 문화들은 준비의 시대”
 - 이 준비 단계가 궁극적 계시를 지향한다.
 - * 카톨릭, 제2바티칸 공회에서 궁극적 계시 거부
- 초림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 새로운 공적 계시란 없다. ← 초림의 유일성
 - 교회가 제정하는 새 교리들은 성서와 교회의 전통 안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보충할 수 없고 단지 해석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완결된 계시

-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되었다.
-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단 한 번.
- 어떤 종교 지도자도 그가 그 계시를 가졌다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반복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그리스도의 계시 → 완성된 시간
 - 그 이전 ← 기다림의 시간
 - 그 이후 ← 회상의 시간
- 회상이란 그리스도의 계시가 분명히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확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현재화 하는 것을 뜻함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Systematic Theology

그리스도의 계시가 현재화 된다는 것은 신비주의적 체험을 통하여 반복된다든지 혹은 어떤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반복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성령의 능력과 교회의 선포, 인간의 순종과 믿음 가운데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며 효력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과
